

# 濟州島 說話에 드러난 濟州島民의 意識 研究

—傳來傳說을 中心으로—

任 弘 宣

## < 目 次 >

I 序 言	2. 가난에 대한 挫折意識
1. 研究의 目的	3. 現實과의 和解意識
2. 研究의 方法	4. 守分 意識
II 濟州島와 傳說	5. 抵抗 意識
III 意識의 樣相	VI 結 言
1. 地理的·歷史的 不毛性에 대한 論念意識	參 考 文 獻 英 文 抄 錄

## I. 序 言

### 1. 研究의 目的

本稿의 意圖는 濟州島의 傳來 傳說을 分析하여, 濟州島民의 生活의 밑바탕이 되었던 意識을 抽出함으로써 濟州 사람들의 存在樣相을 밝혀보는 데 있다.

個人이 創作한 文藝作品에 作家의 人生觀이나 作家意識이 드러나듯이, 說話에는 그 說話를 享有했던 民衆들의 意識과 性格과 趣向이 드러난다. 說話의 特徵의 하나로서 集團性을 들거니와, 이것은 說話에는 그 享有集團 全般의 特性·思想 및 生活相이 素朴하게 提示되어 있어 그 集團의 精神이 잘 描出되고 있음을 指摘하는 말이다.

說話 중에서도 傳說은 話者거나 聽者거나 흔히 歷史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傳說은 歷史的인 資料로서 意義가 있다기보다 歷史意識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注目된다<sup>1)</sup> 또 傳說은 歷史의이며 事實의이기를 지향하기 때문에 有名한 人物이나 地理的 表識, 혹은 特殊한 에피소드와 關聯된 共同體의 心像 속에 具體的인 聯想을 일으킬 수 있으며, 傳說의 追認은 바로 共同體의 心像에 어떤 聯想의 波紋을 일으키느냐에 달렸다.<sup>2)</sup> 따라서 共同

1) 趙東一, 「口碑文學의 世界」(서울, 새문社, 1981) p. 35

2) 李相日, 「說話장르論」(「民談學概說」서울, 一湖閣, 1982) p. 50

體와 關聯된 傳說是 集團意識의 表象이 된다.<sup>3)</sup> 傳說을 통하여 한 集團의 意識을 살펴 볼 수 있는 論據는 여기에 있다.

濟州島는 하나의 民族集團도, 政治的 共同體도 아니었지만, 地理的·歷史的 環境으로 말미암아 獨立된 共同體로서 固有的 傳說을 갖고 있다. 오랜 生活過程에서 形成된 많은 傳說들이 本土(陸地)와 공통된 것을 가지면서도 濟州의 生活樣式과 特殊한 風土的·歷史的 조건 아래 濟州 特有的 性格을 띠고 있다. 그리하여 거기엔 낯달리 영위되던 習俗이나 信仰과 鄉土性에 依하여 結果的으로 마련된 濟州島民의 意識이 여실히 反映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濟州의 先民들은 불우한 立地性과 歷史性으로 하여 苦難의 삶을 살았었다. 이 불우했던 生活與件 속에서 民衆들은 어떤 意識을 지녀 한 時空을 살았었는가를 밝혀 보는 것은 그들의 삶의 實相을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아울러 口碑文學을 통하여 이를 享有하는 사람들의 意識에 비친 多樣性을 살펴 보는 일은 口碑文學이 總體的으로 지닌 다양성을 理解하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므로<sup>4)</sup> 本稿는 여기에 研究의 意義를 찾으려 한다.

## 2. 研究의 方法

口碑文學에 나타난 現實認識의 態度나 批判精神은 文學의 主題와 思想에 대한 새로운 論議 展開의 계기가 될만하다.<sup>5)</sup> 따라서 濟州도 傳來 傳說에서, 濟州島라는 特殊한 地域에서 삶을 營爲했던 사람들의 意識을 밝혀 보는 本稿는 濟州島 說話에 대한 文學的 研究의 性格을 띤다. 한 集團의 意識에 대한 研究는 單純히 歷史的 好奇心을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本稿는 지나간 時代에 대한 單純한 歷史的 探求에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神話· 民譚까지도 망라한 說話전반에 투영된 濟州島民의 意識 考究를 意圖하면서, 그 作業의 一部로 規定한다. 아울러 한 時代의 民衆意識을 바로 把握하자면 그에 앞선 時代의 것부터 알아야 한다는 一般의 見解에 立脚한 豫備의 研究로서, 장차, 現在의 濟州島民의 意識 探求에 關聯되기를 期待한다.

本稿의 資料들은 玄容駿<sup>6)</sup> 秦聖麒<sup>7)</sup>에 依해서 수집된 傳說들을 主로 하고, 筆者가 수집한 것도 아울러 다. 濟州島의 傳說은 大體로 自然傳說, 歷史傳說, 信仰傳說로 分類되는데 本稿에서 分析· 檢討의 對象으로 삼은 資料는 主로 濟州島의 地理的 生成을 이야기하는 自然傳說과 人物傳說, 그리고 風水傳說중에서, 敘事構造가 뚜렷하며 筆者나름의 見解에서 現實과

3) 上揭書, p. 50

4) 金烈圭, 「民談을 보는 多樣한 눈」(「民談學概論」서울, 一潮閣, 1982) p. 3

5) 趙東一, 前揭書, p. 15

6) 玄容駿, 「濟州島 傳說」(서울, 瑞文堂, 1977)

7) 秦聖麒, 「南國의 傳說」(서울, 敎學社, 1981)

「南國의 民譚」(서울, 螢雪出版社, 1981)

對處하는 狀況에서 生活意識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限定한다. 傳說에 投影된 意識의 抽出은 傳說 各篇을 한篇의 文學作品으로 보는 觀點에서, 타이프 (Type) 와 에피소드 (Episode)의 主題 및 모티프 (Motiff)의 意味 解釋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sup>8)</sup> 이와 아울러 이러한 作業에서 重要的 것은, 傳說을 集團의 所産이란 側面에서만이 아니라 口演者 個人의 特性도 尊重되어야 하는 것이겠기에<sup>9)</sup> 口演者의 부연적 사실도 검토하려 한다.

傳說에 투영된 集團의 意識을 밝혀낸다는 것은 무리한 作業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濟州島 傳說 한편 한편의 合理的인 解釋을 위해서는 濟州島의 人文·社會·自然의 全 영역에 걸친 보 조과학의 지원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人間精神이란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 으로 把握되는 性質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集團의 意識을 밝힌다는 것은 여러 方法을 통한 오랜 作業의 결과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本稿는 하나의 시도이면서 方法的인 探求에 그칠 수도 있다. 아울러 說話장르의 一種인 傳說을 대상으로 한 이 研究는 濟州島民의 意識의 일면적 考察에 지나지 않을 것임도 물론이다.

끝으로 本稿는 제주도 說話를 대상으로 한 先行 研究<sup>10)</sup>와 관련됨을 밝혀 둔다.

## II. 濟州島와 傳說

언제, 누구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제주도를 가리켜 ‘民謠의 나라, 傳說의 섬’이라고 한다. 口碑文學이 그만큼 풍부함을 일컫는 말이다.

事實, 濟州島에는 傳說이 풍부하다. 멀리는 설문대할당이 제주도의 山岳을 만든 이야기로 부터 시작하여, 가까이는 辛丑年 聖敎亂의 李在守에 얽힌 傳說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傳說을 가지고 있다. 地理的 條件에 따르는 宿命的인 苦難과 빈번한 外勢의 侵害를 받으면서도 挫折 함이 없이 살아온 島民의 生생한 삶의 歷史가 事實의으로 믿어지는 傳說로 形象化되어 온 것이다. 傳說은 體驗에서 우러난 體驗談이므로 傳說에 나타나는 事象들은 모두가 體驗을 基礎로하여 形成된 이야기들이다. 그러기에 濟州島의 傳說은 濟州島라는 特殊한 風土條件과 歷史的 狀況에서 生을 영위해 온 濟州島民의 꿈이요 哲學인 同時에 우리 民族의 그것이기도

8) 타이프 (Type)란 獨立하여 存在할 수 있는 獨自의이고도 完全한 이야기의 型을 말하며, 에피소드 (Episode)란 하나의 갈등이 시작되어 해결되기까지를 말하는데, 이 에피소드가 하나 혹은 몇 개가 모여 하나의 타이프가 된다. 에피소드는 다시 하나 혹은 몇 개의 모티프 (Motiff)로 형성된다. 曹喜雄, 「說話의 類型 및 分類」(『韓國口碑文學選集』, 서울, 一潮閣, 1982) p. 3참조

9) 金烈圭, 前揭書 p. 13

하다.<sup>11)</sup>

이렇듯 口碑文學으로서의 傳說이 이를 享有했던 民衆들의 生活全般과 직결 된다고 볼 때, 그 속에 투영된 共同體의 意識을 考究하려면 먼저 이를 生성한 집단의 時空의 背景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濟州島는 絕海의 孤島다. 地殼은 漏水性이 강한 玄武岩으로 형성되어 있고, 土質은 메마른 火山灰土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자연적 조건은 심한 食水難<sup>12)</sup>과 함께 主食을 발농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要因이 됨으로써, 주민들은 대대로 衣食住에서 영세성을 벗어날 수 없었다, 비좁고 메마른 땅<sup>13)</sup>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島民들에게 三災—강풍·호우·한해—의 被害 또한 막신했다.<sup>14)</sup> 鮮朝 光海君때부터 1910년까지 사이에 凶年이 70회에 달했다고 하니<sup>15)</sup> 生活難이 어떠한가 하는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濟州島를 罪人의 流謫地로서만 適地라고 말한 李健의 ‘濟州風土記’의 기록에서, 과거의 濟州가 얼마나 不毛의 땅이었던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피로운 것은 조밥(粟飯)이요, 가장 두려운 것은 사갈(蛇蝎)이요, 가장 슬픈 것은 파도 소리다. 더구나 서울의 소식과 고향의 소식에 있어서는 이를 몽혼(夢魂)이나 부치는 외에 들을 길이 없다.……이곳은 실로 통국(通國)의 죄지(罪地)로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죄 있는 사람을 이 땅에 추방하는 것은 길이 적의 함을 얻은 것이다.<sup>16)</sup>

絕海孤島요, 메마른 땅에 三災가 겹친 濟州島의 地理的 環境의 不利는 島民의 삶을 여유없게 만들었다. 더구나 內外的으로 당해야 했던 社會的·歷史的 受難도 극심했으니 그것은 관리들의 擄取와 外勢의 侵奪이었다.

10)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실화」(서울, 弘盛社, 1981)

——, 「濟州說話를 통한 濟州島精神考究」(「濟州大學論文集 12輯」1980)

11) 玄容駿, 前揭書, p. 3

12) 金 淨, 「濟州風土錄」

漢拏山及州邑地 泉井絕少 村民或汲水於五里則謂之近水 或有終日 一汲二汲 而多甃泉

13) 金尙憲, 「南槎錄」

地多岩石 舖土數寸 土性浮燥 墾田必驅牛馬以踏 又不產木綿麻 蓀 衣食俱乏 惟採海物 以仲生業 風土錄 三邑皆在 漢拏山之麓 平土無半畝久 耕田如挑剔別漁腹

14) 金錫翼, 「耽羅紀年」

時朝議 定本島稅 總大臣 筮秦日 此島地勢 山高多風災 谷深多水災 土薄多旱災 三災併侵 年必多數 若責納稅 民無以生 王從之

15) 金宗業, 「歷史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耽羅精神探求 세미나 주제발표요지, 제주도文化財課, 1979) p. 17

16) 李 健, 「濟州風土記」

最苦者粟飯也 最畏者蛇蝎也 最悲者波聲也 以至於 日下之消息 鄉關之音信 付之夢魂之外……<中略>…此實通國久罪地 人所不堪之處 國家所以放逐 有罪人於此地 深得其宜也.

濟州라고 해서 清白吏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耽羅國이 붕괴된 12世紀 以來, 이 고장을 스쳐간 牧民官의 數는 약 500을 헤아리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庶民들의 指彈을 받았던 對象들이었다. 여기에 地方官員들이 合勢하여 苛歛誅求는 극에 이르렀으니 그 몇 가지 實相을 記錄에서 찾아 본다.

민가에도 감골이 있으나 가을에 결실하기 시작하면 관가에서 적간(摘奸)하여 그 과수를 기적하여 익기를 기다리다가 진공하는 것인데, 그때 만일 그 수가 줄어들거나 하면 그 주인에게 징(徵)한다. 그런고로 감골나무 주인은 과객이나 다름없이 감히 손을 대지 못한다.<sup>17)</sup>

포작배(浦作輩)는 홀아비로 살다가 늙어 죽는 자가 많이 있다. 그 까닭을 물어보니 본주(本州)에서 진상하는 진북의 수량이 매우 많고 관리들이 공(公)을 빙자하여 사육을 채우는 것이 또 그 몇끝이 되므로 포작배는 그 일에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고 익사하여서 열에 둘 셋만 남게 되나, 징렴(徵歛) 공응(供應)은 전보다 줄지 아니하니 이 때문에 그 몸은 오래 바다에 있고, 그 아내는 오래 옥 속에 있어 원한을 품고 고통을 견디는 모양은 말로 다 이룰 수 없다. 이 때문에 이웃에 사는 홀머미가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빌어 떠다가 스스로 죽을지언정 포작인의 아내가 되려고 하지 아니한다.<sup>18)</sup>

이렇듯 貪虐을 일삼은 官員이고 보니, 자신의 비위가 中央에 流播될까 보아 進上에 따라다니는 者 外에는 서울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다.<sup>19)</sup>

濟州島의 역사는 슬한 貢納에 시달리는 歷史였다. 오래전 宗主國인 新羅·百濟에 대한 朝貢에서 비롯하여 高麗를 거쳐 朝鮮朝에 이룰수록 貢賦의 부담은 점점 가중되었다. 世宗實錄 地理誌에 실린 濟州牧의 土貢 細目만 보더라도 도민들이 貢賦에 얼마나 시달렸던가를 알 수 있다.

玳瑁·薰膏·牛毛·梔子·柑子·柚子·乳柑·洞庭橘·金橘·青橘·山橘·全鮑·引鮑·槌鮑·條鮑·鳥賊魚·玉頭魚·昆布·山柚子木·二年木·梔子木·良馬·藥材·陳皮·

17) 李 健, 「濟州風土記」

一(前略) 一閭家亦多有之 而秋成結子之初 自官家摘奸 等其顆數 而成籍 待熟摘取 而進供其數 若縮則 徵於其主 故其主有同過客 不敢下手云

18) 金尙憲, 「南槎錄」

然浦作輩多有鰥居而老死者 問其故 本州所貢鰻魚之數極廣 官吏之憑公營私 又且倍蓰浦作輩 不堪其役 流亡溺死 十存二三 而徵歛供應 不減於舊 以其身則長在海中 其妻則長在獄中 含冤耐苦之狀 不可勝言 故雖有隣居 婦 寧願乞食自終 不慾爲浦作人之妻也云

19) 金尙憲, 「南槎錄」

餘見今則不然 武吏之不謹者 自恃海外 恣意貪割 泣民之際 勳行無理之事 一島之人 抱冤其伸 皆願一至京城 少達悶迫之情 而守令惡其流播己之惡 陪持進上者外 禁不許出

山藥·石薺·川練子·白芷·八角·零陵香·五倍子·梔子香·附子·木瓜·紫胡·青皮·白扁豆·草烏頭·海東皮·厚朴·烏魚骨杜冲·蔓荊子·石決明·半夏·黃菊·鹿茸·舶上·茴香·枳殼<sup>20)</sup>

이러한 進上品은 國王이나 中央의 各 官署에 따라 一定한 數量이 定해지는데, 이를 조달하는 過程에서의 地方官員들의 不正은 島民을 또한 塗炭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다.

濟州는 外侵에 의한 被害도 大端했다. 高麗 元宗 14年 (1273), 이 고장은 三別抄戰의 激戰地였고, 그 후 13世紀 前半부터 14世紀 後半에 이르는 近 百年間은 元의 牧馬場으로서 外勢의 支配를 받는 困辱의 運命을 甘受해야 했다. 또 日本과 거리가 가까운 고로 14世紀 中葉 以來 濟州島 沿岸에는 倭寇의 侵犯이 빈번하여 人命과 財產上의 被害가 莫甚했다.

이러한 일련의 歷史的 소용돌이 속에서 受難을 겪는 것은 民衆이요 庶民이다. 피나는 賦役이 強要되었으며 男丁들은 軍役으로 動員되는 등, 언제나 生命과 財產上의 위협이 뒤따랐다. 濟州島의 歷史的 條件이 이러함에서 한 때 濟州島民이 陸地로 流亡하는 現象이 일어나고, 流亡民이 해를 거듭할수록 增加함에 따라 仁祖 7年 8月, 濟州島民의 出陸을 禁止하고 濟州 女人과 陸地部 男子와의 禁婚을 國法으로 定하기까지 했는데, 이로부터 이 法은 200年 가까운 純祖末 (1831)까지 施行되었다.<sup>21)</sup>

오늘날 濟州島는 觀光資源이 풍부한 고장, 住民所得이 높은 고장으로 認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늘이 있기까지는 地理的·歷史的인 不利한 與件에 맞서서 삶을 營爲했던 先民들의 受難史가 있었음을 理解하는 것은 濟州島 및 그 傳說이 지니는 意味를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Ⅲ 意識의 樣相

사람들은 同一한 時空의 生活環境을 경험하는 동안 그 生活樣式이 內面化되어 그들 特有的 意識構造를 갖게 된다. 이러한 意識構造는 그 社會成員의 一般的 觀念形態이며 그 社會集團에 공통된 基本的 經驗과 生活樣式의 結果 發達된 社會的 性格의 反映으로서, 信念의 組織으로서의 態度體系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이러한 意識構造는 社會의 差異에 따라 서로, 다르게 形成되어 그 社會成員의 行動을 規制하기도 하며, 社會的 統合을 이룩하는 데 重要한 구실을 하기도 한다. 傳說이 그 享有者를

20) 金榮敦, 「濟州島 民謠에 드러난 生活觀」, (『知愚邊時敏博士 回甲紀念論文集』, 1978) p. 468에서 재인용

21) 金泰能, 「濟州民의 流亡과 出陸禁止」 (『제주도 27호』, 제주도, 1960), pp. 103~109

強하게 地域化하고 大地化하는<sup>23)</sup> 機能을 가질 수 있음도 바로 傳說 속에 그 享有集團의 意識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濟州島民의 生活은 自然環境의 不毛性에서 오는 가난과 官員들에 의한 收奪, 外勢의 侵奪에서 오는 위험 등, 苦難에 찬 것이었다. 이렇듯 험난한 時代와 狀況을 살면서 島民이 선택한 意識을 傳說을 통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樣相으로 나타나고 있다.

### 1. 地理的·歷史的 不毛性에 대한 諦念意識

입에서 입으로 傳承되는 동안에 그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整形되는 傳說은 그것을 共同으로 所有하고 있는 사람들의 體驗과 想像力에 依한 所産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傳說은 그것을 共同으로 所有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되비치기도 하고, 그들이 바라고 있는 祈願같은 것을 그 속에 간직하기도 한다. 濟州島 傳說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니 그 중에는 單純히 想像力에 依해서 이루어진 듯한 것도 없지 않으나, ‘설문대할망’ ‘고종달(胡宗旦)’ ‘아흔아홉골’, ‘城山日出峰’ 등의 自然傳說들은 濟州島의 地理的·自然的 事實을 解明하는 途에 濟州라는 特定한 地域의 狀況에 대한 島民의 意識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이들 傳說들은 嶺이라는 地理的 絶離性과 歷史的 試鍊 때문에 苦難의 生을 營爲해온 濟州島民들이 그들의 地理的·歷史的인 不毛의 與件을 決定論的으로 受容함으로써 이를 宿命的인 것으로 諦念하는 意識들을 反映하고 있다. 먼저 ‘설문대할망傳說’을 살펴보면 그 에피소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sup>24)</sup>

(1) 옛날 제주도에는 ‘설문대할망’이라는 거인노파가 있었다. 얼마나 키가 컸던지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한다.

(2) 제주에는 많은 오름(小火山)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 오름들은 할머니가 치맛자락에다 흙을 담아 나를 때에, 치마의 터진 구멍으로 흙이 조금씩 새어 흘러서 된 것이라 한다.

(3) 제주시 한내(漢川) 위쪽에는 큰 구멍이 펜 바위가 있는데 이것은 할머니가 쓰던 감투라 한다.

(4) 할머니는 키가 너무 커 놓으니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속옷을 한 벌만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했다. 속옷 한벌을 만드는 때에는 명주

22) 濟州大學統校—安保研究所, 「濟州道民의 意識構造 調查研究」, (제주도, 1979), p. 3 참조

23) 金烈圭, 前掲書, p. 5

24) 玄容駿, 「濟州道 傳說」, (서울, 端文堂, 1977), pp27~28

1백통 (1통은 50필)이 든다. 제주백성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명주를 모았으나 99통밖에 아니 되었다.” 그래서 속옷을 만들지 못하고, 할머니는 다리를 놓아 가다가 중단하여 버렸다. 그 자취가 조천면 조천리와 신촌리 앞바다에 남아 있다 한다. 바다에 흘러 떨어진 곳이 바로 그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위의 傳說은 濟州島의 地理的 生成에 대한 說明이다. 濟州島는 孤島요 漢 擎山을 主峰으로 하여 300 余個의 小火山들이 四方에 點點히 흩어져 있다. 이러한 地理的 生成事實의 理由를 島民들은 이 巨人老婆傳說을 통하여 合理性 있게 說明하고 있다. 그러면서 島民들은 이 傳說 속에 그들의 所望과 그 挫折의 아쉬움을 含蓄시키고 있으니, 에피소드 (4)에서의 ‘설문대할당’의 連陸을 위한 作業과 그 中斷의 motifs는 바로 제주사람들의 그러한 意識을 反映하는 것이다. 環海天險의 孤島에서 사는 제주도민에게 있어서 連陸은 最大의 所願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所願이 現實적으로 可能할 수 없는 白日夢임을 깨달을 때, 아쉬움을 가난의 責任으로 歸結지으면서 어쩔 수 없었던 狀況, 피할 수 없었던 運命으로 現實을 受容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傳說은 제주도가 ‘섬’일 수 밖에 없는 地理的 決定事實에 대한 解明임과 同時에 그 底邊에 깔려 있는 意識은 주어진 狀況을 하나의 宿命으로 받아 들이는 諦念이며, 地理的 與件에 대한 限界意識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섬이라는 地理的 與件이 반드시 民生을 어렵게 하는 要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濟州島는 地質이 漏水性이 강하여 샘 [泉] 이 드물 뿐더러 논 [畓] 이 귀하다. 때문에 島民들은 甚한 食水難을 겪어야 했으며, 主食은 조·보리에 依存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덮쳐 官員들의 貧虐과 外勢의 侵奪은 島民의 民生苦를 더욱 加重시켰다. 이러한 與件에서 삶을 살았던 제주사람들이기에, 그들의 現實狀況에 대한 限界意識은 濟州島가 섬이라는 地理的 絕離性外에, 그 風土的·歷史的 不毛性마저도 이를 決定論적으로 보는 데까지 深化되고 있다. 이러한 意識이 드러나는 傳說들은 風水地理思想과 關聯된 自然傳說로서 ‘고종달 (胡宗旦) 傳說’ ‘아흔아홉골傳說’ ‘城山 日出峰傳說’이 그 代表的인 것이 된다.

<고종달傳說>의 基本的인 타입은 다음과 같다.

- ① 中國 秦始皇은 제주가 王侯之地임을 알고 걱정한다.
- ② 人傑 (王)이 나지 못하도록 風水師 高宗달 (胡宗旦)을 제주에 파견한다.
- ③ 高宗달은 제주에 와서 여러 곳의 地脈과 水脈을 끊어 버렸다.
- ④ 그 結果, 제주에는 人物 (王)도 나지 않게 되고 王도 나지 않게 되었다.

이 基本 타입을 中心으로 하여 ‘고종달전설’은 濟州島 全地域에 多樣한 派生態로서 廣布되어 있다.

(1) 옛날 舊左面 終達里는 現在의 位置가 아니었다. 現在의 終達里 (終達里) 境內이긴

25) 一說에는 100필이 필요한데 99필밖에 마련치 못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넙은드리’라는 平地에 있는 ‘대머들’이라는 곳에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여기에 마을을 이루게 된것은 그곳이 토질이 좋을 뿐 아니라, 그 곁에 ‘물징거’라는 좋은 生水가 솟아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종달이는 이 섬에 오자 마자 맨 먼저 이 종다리의 ‘물징거’물의 穴을 떠 버렸다. 그래서 물은 아니 나오게 되고, 물이 솟아났던 구멍만이 지금도 남아있다. 물이 끊어지자, 동네 사람들은 물을 찾아 바다 쪽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종다리가 이루어진 것이다.<sup>26)</sup>

(2) 고종달이는 또 제주의 穴을 떠 나가다가 어느 곳에 이르러 한 穴을 發見하고 正穴에다 쇠꼬챙이를 찔렀다. 그리하여 마침 옆에서 밭가는 농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쇠꼬챙이를 빼서는 안된다.”고 당부하고 다음 穴을 뜨러 떠나 버렸다. 얼마 없어 한 백발노인이 고통스러운 表情으로 이 농부 앞에 나타나 쇠꼬챙이를 빼어 줄것을 간청했다. 농부가 불쌍히 여겨 쇠꼬챙이를 빼니 거기에서는 피가 솟아 올랐고 老人은 피를 얼른 마셨다. 그 穴은 馬穴 이었다. 多幸히 솟아 오르는 피를 멈추게 했으므로 제주도에 말은 나오며, 피가 솟아 버렸기 때문에 제주도의 말은 그 몸집이 작아졌다.<sup>27)</sup>

(3) 고종달이는 제주도에 들어와 왕후지지를 찾아 헤맸다. 며칠 만에가 왕후지지를 찾아내었다. 그것은 바로 산방산에 있는 용머리였다. 이 용이 살아 있기 때문에 왕후지지가 되는 것이니, 요놈만 끊어 죽이면 문제 없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고종달이는 먼저 용의 꼬리 부분을 한칼로 끊고 이어서 잔등이 부분을 두번 끊어 버렸다. 끊자마자 바위에서 피가 흘러 내리고 산방산은 드르르하게 신음소리를 내며 울었다 한다. 이리하여 제주도에 왕이 나지 않는다 한다. 이 용머리는 꼬리 부분, 잔등이 부분의 바위가 묘하게도 가로 똑똑 끊어져 있는데, 이것은 그때 고종달이가 끊어버린 자국이라는 것이다.<sup>28)</sup>

이렇게 <고종달傳說>은 濟州島 各 地域의 自然的 特殊性에 따라 그것을 合理的으로 說明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變形되었다. (1)은 물줄기가 끊어진 샘(泉) 구멍과 한 마을의 設村由來요, (2)는 濟州島의 말이 몸집이 작은 까닭, (3)은 ‘용머리 바위’의 形象에 대한 解明이다. 그러나 ‘고종달傳說’은 王侯之地인 제주에 대한 斷脈過程이 主流를 이루어 濟州의 自然的·歷史的 不毛性의 理由를 說明하는 데 力點이 두어지면서, 그러한 狀況에 대한 島民의 意識을 反映하고 있다. 샘이 드물기에 食水難과 아울러 生活苦를 겪어야 했고, 人物이 없기에 被壓의 쓰라린 삶을 살아야 했던 濟州島民들은 이 傳說을 통하여 現實狀況의 不毛性을 決定論的으로 受容하므로써 그들의 苦痛을 代償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注目할 만한 것은 이 傳說이 濟州의 不毛性을 地理的 條件에서 說明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뛰어난 人物이 나지 않음과 關聯시키고 있다는 事實이다. 고종달의 入島 目的이 人物

26) 玄容駁. 前掲書, p. 42

27) 上掲書, p. 44

28) 上掲書. pp. 48~49

의 出現을 저지함에 있었으며, 斷脈의 結果 濟州에는 人物이 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濟州는 不毛의 땅이 된 것이다. 地理的 與件이 좋아 民生이 安樂하다면 굳이 뛰어난 人物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反對로 現實狀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이 現實을 打開해 줄 人物을 苦待한다. 그러나 濟州의 경우, 이러한 바램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여기에 挫折에서 오는 島民의 諦念과 주어진 狀況에 대한 限界意識이 있는 바, 이러한 意識은 <아혼아홉골 傳說>에도 드러나고 있다.

① 濟州市 海安里 境에 <아혼아홉골>이라는 山이 있는데, 이 山의 골짜기는 原來 100골이었고 많은 맹수도 살았었다.

② 옛날에 中國에서 스님이 한 사람 건너와서 맹수를 없애줄 터이니, 이 곳에 맹수를 모이게 하는 데 協助하라고 하였다.

③ 사람들은 그 말대로 하여 맹수들을 한 골짜기에 모아 놓았다.

④ 그러자 스님은 그 골짜기와 함께 맹수들을 모두 없애버렸다.

⑤ 맹수가 아니 나게 되자 제주에는 王도 큰 人物도 아니 나오게 되었다.<sup>29)</sup>

이 傳說도 '고종달 傳說'과 같은 類型이다. 山의 地形과 제주에 맹수가 없는 事實에 附會하면서 濟州가 宿命的으로 人物이 날 수 없는 땅임을 말하고 있다.

'고종달 傳說'이나 '아혼아홉골 傳說'의 底邊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風水地理 思想이다. 風水가 人間의 興亡을 決定짓는다는 信仰은 사람들을 運命論的인 思考 속으로 몰아넣는다. 運命論的인 思考는 濟州島民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自救的인 수단이었다. 부여된 조건 아래서는 자신의 욕망성취의 가능성에 이를 수 없다고 限界意識을 느낄 때, 체념하고 좌위하면서 타고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諦念意識은 不合理한 現實을 改造해 보려는 未來指向의 意志가 부족하다는 短点으로 지적될 수도 있지만, 反面에 어떠한 試鍊과 苦難이라도 잘 忍耐하고 끈기있게 살아갈 수 있는 底力을 갖게 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들 傳說들은 濟州의 自然의 不毛性·歷史의 不毛性을 合理的으로 說明하면서, 現實的인 苦難을 宿命的인 것으로 알고 이를 受容하는 濟州島民의 삶의 方法을 形象化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點은 이들 傳說이 단지 口碑文學의 次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주 文化 形成에 어떤 機能的 역할까지 담당해 왔음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sup>30)</sup>

## 2. 가난에 대한 挫折意識

濟州島는 地理的 條件이나 氣象的 條件이 農業에는 不利한 高장이었다. 이를테면 土質이

29) 上揭書, pp. 17~18

30) 현길인, 「제주도의 장수실화」, (서울, 弘盛社, 1981), p. 95

火山灰土로서 地瘠浮薄한데다가 石多, 風多의 風土다. 게다가 '섬'이라는 絶離性은 自給生活을 할 수 밖에 없는 要因이 되었으니, 島民의 經濟的 條件은 자연히 가난을 면할 수 없었다.

濟州島의 가난은 제주도의 自然的 事實을 說明하는 '설문대할망傳說'과 그 歷史를 함께 하고 있다. 이 傳說에 依하면 濟州島가 陸地와 連陸이 될 수 없었던 까닭은 가난 때문이었다. 絶海孤島에 사는 제주사람들에게 있어서 連陸의 所望은 가장 값진 것이었지만 全島民의 힘으로도 명주 100통을 마련할 수 없었던 가난때문에 그 꿈은 挫折되고 만다. 또 이 傳說에서 '설문대할망'만큼의 超人의 人物을 表象함에 있어서 속옷 한벌이 아쉽고, 헌치마로 흙을 날라 山岳을 創造하는 위인으로 그려낸 것은 제주도민의 찢어질 듯 가난했던 生活의 反映이다. 漢拏山 靈室에 있는 '五百將軍'에 얽힌 비극적 전설에도 島民의 가난이 實相은 드러나고 있다.

凶년이 든 어느 해, '설문대할망'<sup>31)</sup>의 500名 아들들은 도둑질하러 다 나가 버렸다. 아버지는 아들들이 돌아오면 먹이려고 죽을 쑤다가 잘못하여 그 커다란 가마솥에 빠지고 말았다. 돌아와서 죽을 먹고 난 후, 이 事實을 안 아들들은 날마다 아버지를 그리며 울다가 化石으로 굳어져 버렸다.<sup>32)</sup>

위의 '설문대할망傳說'의 에피소드 또한 제주도의 地理的·自然的 事實을 解明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설문대할망傳說'의 여러 에피소드들에서 속옷 한벌의 아쉬움, 명주의 不足, 헌치마, 凶年, 도둑질 등의 모티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이 傳說을 形成한 제주사람들의 意識이 가난의 문제와 脈絡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生活의 基本條件으로 衣·食·住를 들거니와 그 중에서도 가장 切迫한 것은 食生活이다. 糊口之策을 염려해야 하는 狀況 속에서 生存이 위협 받는 일보다 더 急迫한 문제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濟州島民들은 風土的 不毛性에다가 때로는 官員들의 收奪, 때로는 天災로 인한 凶作때문에 食生活의 安定마저 如意치 못한 實情이었다. 特히 天災로 인한 食生活의 위협은 大端한 것이어서, '金通精將軍傳說'의 에피소드에는 島民의 굶주림이 얼마나 極限의 狀況에까지 이르렀던가를 說明하는 것이 있다.

즉, 金通精 將軍이 百姓을 시켜 土城을 쌓을 때는 몹시 凶年이었다 한다. 그래서 役軍들이 배가 고파 人糞를 먹었는데, 쭈그러 앉아 便을 보고 그것을 먹으려고 보면, 이미 옆에 있던 役軍이 주워 먹어 버려 제 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 한다.<sup>33)</sup> 이 傳說은 國家次元의 政治的 事件의 소용돌이 속에서 地方 百姓이 겪어야 했던 受難의 모습과 함께, 제주사람들의

31) 현용준의 「제주도 전설」에는 <설문대할망>이 아니라 <어떤 어머니>로 되어 있고, 죽가마 속에 빠져 죽은 것도 500형제의 어머니로 되어 있다.

32) 秦聖麒, 「南國의 傳說」(서울, 敎學社, 1981), p. 22

33) 玄容駿, 前揭書, p. 144

배고픔의 한 例를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제주사람들의 배고픔과 그로 인한 挫折의 비극은 <奴僕壯士傳說>에서는 더욱 深化되고 있다.<sup>34)</sup>

‘奴僕壯士傳說’이란 濟州島의 人物傳說 중에서 종 [奴僕]의 身分이면서 超人的인 힘을 지녔던 壯士들의 傳說을 말함인데, 여기에는 (1)막산이傳說, (2)논하니傳說, (3)정운디傳說, (4)새셈이傳說 등이 있다. 이들 傳說의 代表的 類型이라 할 수 있는 ‘막산이傳說’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 ① 300年前 쯤 中文面 中文里 무우남발 李座首의 집에 ‘막산이’라는 종이 있었다.
- ② 체구가 크며 힘이 세고 일도 잘 했다.
- ③ 쉰 사람이 먹을 점심을 한꺼번에 먹고 쉰 사람이 할 일을 혼자서 했다.
- ④ 막산이는 배가 커 놓으니 항상 배가 고파서 밤마다 동네집에 도둑질을 아니 하는 날이 없었다.
- ⑤ 1疇步쯤 되는 조밭에 배어 놓은 조를 잠깐 사이에 전부 묶어서 100여 미터 떨어진 울안으로 던져 놓는다.
- ⑥ 주인은 어떻게든 ‘막산이’를 먹여 살려 보려 했지만 배가 커서 힘겨워, 집을 내 보냈다.
- ⑦ 새 主人인 倉川里 姜氏 집에서도 쫓겨 났다.
- ⑧ 어쩔 수 없이 翰京面 근처에서 지나가는 곡식을 뺏어 먹고, 마소를 잡아 먹다가 결국은 굶어서 죽었다.
- ⑨ 막산이가 죽은 곳이라서 그 때부터 이곳을 ‘막산이구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sup>35)</sup>

위의 ‘막산이傳說’에서 보는 바처럼 제주도 ‘奴僕壯士傳說’의 공통된 줄거리는 大食家이면서 超人的인 능력으로 일을 해내는 奴僕들이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追放되어 도둑질을 하며 살다가 굶어 죽거나 잡혀 죽는다는 것으로, 不幸한 壯士들의 一生譚이다. 이들 傳說에서 重要的 문제는 壯士의 虛饑와 挫折이다.<sup>36)</sup>

이들 壯士들은 모두가 종의 身分이었다. 종의 身分이기 때문에 이들의 生活은 抑壓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傳說에 나타나는 壯士들의 不幸은 身分의 事實에 있는 것이 아니라 大食家라는 事實에서 起因되고 있다. 食慾은 人間의 가장 原初的 本能으로 이 食慾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苦痛의 極致다. 어떠한 苦痛도 饑餓의 고통 앞에서는 차라리 사치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超人的인 힘을 가졌으나 항상 배고픔 속에 변변한 일도 하지 못한 채 挫折하는 壯士들의 一生譚은 하나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34) 여기 대해서는 玄吉彦, 「제주도의 장수설화」, pp. 184~191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다.

35) 玄容駿, 前掲書, pp. 195~200

36) 玄吉彦, 「濟州說話를 통한 濟州島精神 考究」(「濟州大學 論文集, 12輯」, 1980), p. 23

이러한 悲劇性은 自然傳說인 ‘말머리傳說’<sup>37)</sup>에서는 悲壯美마저 지니는 이야기로 나타난다.

濟州市 龍潭洞 다끄네〔修根洞〕에 살았던 ‘배 큰 장서방, 은 힘은 壯士였지만 배가 워낙 커서 부모는 자식을 먹여 살리기에 힘이 겨웠다. 그래서 官家에 解決을 要請했는데 관가에서 = ‘장서방’이 무서운 장사임을 알고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관가에 끌려 와서 눈치를 췌 장서방’은 소원 하나만 들어 주면 죽어도 원이 없다고 말한다. 그 소원이란 한번 실컷 배불리 먹어 보는 일이었다. 관가에서 쌀 한 섬의 밥과 소 한 마리를 잡아 주었다. 이를 다 먹고 난 ‘장서방’은

“나를 죽이려거든 큰 바윗돌을 두 팔과 두 다리에 묶어 매어 배에 실어다 바다에 던지면 나는 죽을 것이요.”

라고 말했다. 관가에서는 그 말대로 했는데, ‘장서방’은 3일 동안이나 바다 속에 가라앉지 않고 가끔씩 물위로 떠 올라와서는

“어머님, 나 삼네까, 죽음네까?”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부모는 가슴이 아팠으나 살아 나와서 배고파 죽는 것보다 지금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하여 살라고 하지 않았다.

이 傳說에서 官이 「장서방」을 죽이게 되는 것은 ‘아기장수傳說’ 모티브와 同一하다. 그러나 이 傳說의 要諦는 壯士의 배고픔과 挫折이다. 한 끼의 배부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어머니, 나 삼네까죽음네까?” 하는 子息의 애절한 외침도 ‘살아서 배고파 죽는 것보다 = 지금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하여’ 끝내 목살되는 이 傳說에서 가난의 意味와 苦難으로 인한 挫折의 비극성을 느낄 수 있다.

結局, 이들 傳說들은 제주 사람들의 가난의 實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壯士들은 남다른 힘을 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糊口라는 最低의 報償마저도 받지 못한다. 보상을 받기는 명 追放되든가, 스스로 죽든가, 굶어 죽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濟州라는 地域의 社會的 閉鎖性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가난 때문이다. 여기에 제주사람들의 가난에 대한 恨 스러움과 그로 인한 挫折의 意識이 드러난다. 제주라는 한 共同體에서 위의 傳說들에서 보이는 바, ‘부지런히 일하나 항상 배고픔 속에 살다가 죽어간 恨스러운 人物’<sup>38)</sup>을 이야기 속에 創造해 낸 것은 그들 自身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이다.

### 3. 現實狀況과의 和解意識

濟州島民은 惠澤 받지 못한 現實的 與件으로 因하여 苦痛스러운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挫折해 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生活에 대한 強한 執念으로써 苦難의 實을 克服하여 왔다.

37) 玄容駿, 前揭書, pp. 54~55

38) 玄吉彦, 前揭論文, p. 26

濟州島民에게 있어서 生活에의 執念은 現實 狀況에 대한 安定 追求를 意味한다. 安定이란 一般 民衆들이 바라는 가장 큰 所願이다. 社會가 不安할수록, 生活의 苦痛이 더할수록, 安定을 追求하는 마음은 더욱 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濟州島民들은 스스로를 現實과 和解시킴으로써 安定을 圖謀하고 있다.

現實狀況과의 和解 내지 和合意識은 濟州島의 傳說 중, ‘오누이힘내기傳說’과 ‘아기장수傳說’의 構造를 本土〔陸地〕의 그것과 比較할 때, 두드러진 特徵으로 나타난다.<sup>39)</sup> 本土의 이들 類型의 傳說들이 主人公이 沒落하는 劇烈한 悲劇性을 지니는 데 反하여 濟州島의 그것은 悲劇性이 相當히 去勢된 變異形態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오누이힘내기傳說’은 全國에 廣布되어 있으며, ‘아기장수傳說’과 함께 悲劇性을 強하게 지니는 特徵이 있다. 이 傳說은 地域에 따라 多樣한 變異形態로 나타나는데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構造를 지녔다.

- ① 홀어머니가 힘이 센 오누이를 데리고 살았다.
- ② 두 오누이는 한 집에 살 수 없어 내기를 하여야 하였다.
- ③ 어머니가 아들편을 들었다.
- ④ 누이가 패배하여 죽는다. 또는 오라비와 어머니도 함께 죽는다.
- ⑤ 증거물의 제시

이 傳說에서 留意할 만한 것은 그 悲劇的 結末이다. 누이는 敗北感에서 죽고, 오빠는 良心의 苛責으로 죽고, 어머니는 自身의 偏愛로 오누이를 잃은 슬픔에서 죽으니, 그 어느 傳說보다도 悲劇的이다.<sup>40)</sup> 이렇듯 本土의 ‘오누이힘내기傳說’은 和合이 不可能한 두 勢力의 葛藤·對立으로 시작하여, 한 勢力이 沒落하거나 또는 두 勢力 모두가 沒落하는 構造를 지니 그 證據 提示와 함께 民族 全體의 悲劇的 本質을 暗示하는 重大한 示唆性을 지니고 있다.<sup>41)</sup>

그러나 濟州도의 ‘오누이힘내기傳說’에서는 生死를 겨루어야 할, 和合할 수 없는 두 勢力이나 어머니의 重男思想으로 인한 偏愛 motiv가 없으며, 따라서 두 勢力의 關係破綻이나 悲劇的 結末이 除去된 變異形態를 보이고 있다. 濟州도의 경우, 누이와 오라비의 힘겨루기는 모두가 씨름으로써 이뤄지는데, 이 힘겨루기의 動機가 오라비의 위기를 救하기 위해서거나<sup>42)</sup> 아니면 오라비의 放恣함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다.<sup>43)</sup> 그리고 그 結果는 누이와 오라비의 人間的 和解내지 男妹의 友愛로 이르게 된다.

39) 이에 대해서는, 玄吉彦이 「濟州도의 장수설화」, 弘盛社, 「濟州도 오누이 장사전설」, 「耽羅文化 창간호」, 濟州대학 탐라문화연구원, 1982)에서 논급하고 있다.

40) 蘇在英, 「傳說」, 「韓國民俗大觀6, 口碑傳承·其他」,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1982), p. 112

41) 上揭論文, p. 112

42) <始興里 玄氏男妹>, <홍리 고대각>, <김초서누이>傳說

43) <吳察訪傳說>

吳察訪의 아버지는 튼튼한 아들을 낳으려고 婦人이 임신하자 소 열 마리를 잡아 먹었는데 낳은 것은 딸이었다. 다음에 다시 임신을 하자 이번에는 아홉 마리를 잡아 먹었는데 아들(吳察訪)을 낳았다.

男妹는 자라면서 힘이 壯士였다. 濟州 섬 안에서는 吳察訪을 당할 者가 없었다. 그러나 누님은 그의 眼下無人格인 態度를 고치려고 하였다.

어느날 씨름판에 누님은 男裝을 하고 나가서 동생과 겨루었다. 동생이 지고 말았다. 그러나 동생은 그 相對者가 누구인지 몰랐다. 누님은 동생의 靚신을 서까래 아래 끼어 놓고 그것을 찾아 신도록 하였다. 吳察訪은 찾았으나 꺼낼 수가 없었다. 그러자 누님이 꺼내주었다. 吳察訪은 그제야 누님의 힘을 깨닫고 그의 態度를 고쳤다.<sup>44)</sup>

‘아기장수傳說’ 또한 全國에 廣布되어 있으며 民衆의 抵抗과 挫折의 歷史的 體驗을 담은 傳說로서<sup>45)</sup> 그 原形은 ‘태어난 아기장수를/부모가 죽였더니/용마가 나왔다’는 話素의 結合으로 드러난다.<sup>46)</sup> 그리고 이 傳說의 重要話素는 다섯인데 이를 要約하면 ‘神助 出生한/아기장사가/부모에게 죽고/관군에게 죽은 후/용마가 나왔다’는 것이 된다.<sup>47)</sup>

이 ‘아기장수傳說’은 뛰어난 人物의 出現을 苦待하는 民衆의 念願과 非凡한 人物을 受容할 수 없는 社會的 閉鎖性과의 相衝으로 하여 비극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아기장수가 父母에게 죽었다가 다시 官軍에게 再起 直前に 두번째 죽는다는 構造의 複合性은 內容上 悲劇美를 倍加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두번이나 살아나려는 未來의 希望 (아기장수)은 두번이나 무자비하게 現實의 保守 (父母와 官軍)에게 挫折된다는 反復漸層의 悲劇性을 지니는 것이다.<sup>48)</sup>

제주도의 ‘아기장수傳說’은 本土의 그것과 다른 變異를 보이고 있다. 그 變異의 두드러진 特異點은 ‘아기장수傳說’이 지니는 비극성이 상당히 克服되어 있다는 事實이다.<sup>49)</sup> 제주도의 경우, 子息이 날개가 달린 非凡한 人物임을 알고도 父母는 날개만을 除去해 버리는 것으로 끝난다. 그럼으로써 아기장수는 날개만을 잃을 뿐, 平凡人으로 돌아와 힘센 壯士로서 一生을 살아나간다.

洪善業은 約 300年前 涯月面 新嚴里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이 예사 사람과 다르고 힘 또한 세었다. 집안이 가난하여 洪善業은 靚신을 팔았는데 城안까지 팔리도 다녀오는 것이었다. 이상히 여긴 아버지가 아들이 신고 갔던 靚신을 보니 靚신에는 흠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수상하게 여긴 아버지가 아들에게 독한 술을 먹여 잠을 재우고 몸

44) 玄容駿, 前揭書, pp. 83~85 <吳察訪傳說>

45) 沈晶燮, 「傳說의 文學的 構造」, (『文學과 知性』, 1977. 봄호)

46) 崔來沃, 「아기 장사 傳說의 研究」, (『韓國民俗學』, 1979. ), p. 157

47) 上揭論文, p. 157

48) 崔來沃, 「韓國口碑說話의 研究」, (서울, 一潮閣, 1981), p. 150

49) 玄吉彥, 前揭書, p. 136

을 검사하였더니, 아들의 거드랑이에는 날개가 들켜 있었다.

아버지는 官家에서 알면 逆賊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 아들의 날개를 잘라 버렸다. 그래도 업선은 보통사람보다 힘이 壯士여서 누구도 그 힘을 당하는 者가 없었다.

洪業善의 墓는 現在 外都里 위 쪽 사만이라는 곳에 있고, 每年 墓祭를 지낸다.

勿論, 濟州島의 경우도 아기장수를 拒否하는 [죽이는] 일이 없지않다.<sup>50)</sup> 그러나 ‘洪業善’ ‘평대 부대각’ ‘한연 한배임재’ ‘密陽朴氏’ 등, 大部分이 날개만 除去되었을 뿐, 壯士로서 一生을 살았으며 ‘金通精’ ‘李在守’ 傳說에서는 날개마저 受容된다. 이렇듯 濟州地域에서 傳承되는 ‘아기장수傳說’에서는 本土의 傳說이 갖는 極烈한 悲劇性이 去勢되면서 現實과 和解하여 살아가는 壯士의 이야기가 主流를 이룬다.

傳說은 空間的 制約을 받으므로 各 地方마다의 特殊性을 지닌다.<sup>51)</sup> 傳說에 있어서의 變異가 無秩序며 氣分대로의 非論理的 現象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오랜동안 人間의 心中을 거처온 傳說이라면 變異에는 그 나름의 地域的 理由가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오누이힘내기 傳說’이나 ‘아기장수傳說’의 變異는 濟州島民이, 現實狀況과의 尖銳한 封峙的 姿勢에서가 아니라, 現實과의 和合 내지 和解를 通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現實을 現實대로 受容하여 그에 順應하는 意識의 反映이라고 할 것이다.

#### 4. 守分意識

濟州島 傳說에 드러나는 島民意識의 또 하나의 모습은 知足安分, 安貧守分의 意識이다. 이것은 가난하면서도 마음을 平安히 가져 自己의 分수를 지키고, 넉넉하고 모자람을 알아 過慾을 부리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現實狀況에 대한 순응의식과 脈絡을 같이한다.

제주사람들의 幸福의 尺度는 별로 큰 것이 아니었다. 제주사람들의 氣風의 하나로서 儉素를 들거니와, 가난에 시달리며 살아 온 島民들은 적은 幸福으로도 滿足할 줄 알았다. 넘치는 것보다는 약간 부족한 것이 나으며, 自己 分수 以上の 욕심은 不幸의 素地가 된다고 믿었다. 이러한 意識은 風水傳說에 짙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들 傳說들을 통하여 어려운 狀況을 슬기롭게 살아온 제주사람들의 모습과 對할 수 있다.

濟州에는 風水傳說이 흔하다. 그것은 그만큼 제주도가 風水信仰이 盛行했던 高장임을 意味한다. 또 그 盛行의 實相은 제주도의 決定事實을 風水 모티프로서 說明하고 있음을 보아도 짐작이 간다. 風水란 晋나라 郭璞의 著書 ‘葬經’의 藏風得水란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風水說은 곧 人間은 地上에 살다가 地中으로 가는 까닭에 항상 地氣와 깊은 關係가 있으며 生命

50) <백락구룡傳說>, <橋來里將軍傳說>

51) 蘇在英, 前揭論文, p. 77

과 生活의 盛衰도 地氣에 左右된다는 것이니, 여기에 地勢를 살피 避凶求福이 必要하다는 俗信이다. 그런데 不幸한 一生을 살아야 했던 제주 사람들은 子孫이나마 그런 不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名堂을 찾는 데 모든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제주에도 斷脈으로 人物이 나지 않은 이야기, 名堂과 發福, 凶地和 沒落을 이야기하는 傳說이 많다.

名堂을 찾으면 發福한다는 風水信仰의 底邊에는 退嬰的이고도 運命論的인 思考가 깔려 있는 反面, 現實狀況을 克服하려는 意志가 강하게 作用하고 있다. 말하자면 上向을 위한 欲求가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風水信仰의 所産인 濟州島 風水傳說에서는 逆說的이기도 이러한 欲求에 대하여 警世의 意味를 가지는 것이 많다. 名堂의 俗信을 認定하면서도 분수에 지나치는 求山行爲를 警告하면서 守分意識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시오름 (表善面加時里)에 소를 100마리나 갖고 있는 康堂長이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乘馬用 말 100마리를 가지는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 ② 강당장은 어쩌나 인색했던지 거지에게 쌀 한 줌 주는 일이 없었다.
- ③ 강당장의 인색함을 괴씸하게 생각한 중이 '이런 부자는 기세를 꺾어 놓아야겠다'고 생각하여, "강당장의 先墓는 正穴이 아니어서 소 100마리를 갖는 부자는 되겠으나 승마용 말 100마리를 갖는 부자는 될 수 없다"는 말을 퍼뜨렸다.
- ④ 타는말 100마리가 욕심이 난 강당장은 그 중을 청해다가 말 100마리를 가질 수 있는 뒷자리를 구해 달라고 간청했다.
- ⑤ 강당장은 중이 잡아 준 자리에 선묘를 이장했는데, 그후 그의 집엔 온갖 凶事와 不和가 끊이지 않고 가세가 기울어져, 얼마 안가서 망해 버렸다.<sup>52)</sup>

위의 傳說은 '장자못傳說'의 類型으로, 勸善懲惡의 主題를 지니면서 同時에 이 傳說을 享有하는 濟州島民의 守分意識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강당장의 몰락은 그의 斥佛과 인색한 人間性에도 原因이 있는 것이지만, 보다 決定的인 原因은 소 100마리를 거느리는 부자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過慾에 있었다. 그의 과욕으로 인한 沒落의 過程이 얼마나 참담했었는지 이 傳說은 濟州島 民謠의 素材가 되고 있을 程度이다.

가시오름 강당장 집의  
 승시 제와 들이젠 허난  
 틀은 득이 고기약 허폭  
 배뀐 개가 웅공공 허고  
 그스린 듯이 들음을 돈고  
 앓진 솟이 걸음을 걸나

52) 玄容駿, 前掲書, pp. 160~162

이렇게 이 傳說이 다른 口碑文學에까지 借用되고 있다는 事實은 그만큼 島民들의 意識이 이 傳說에 강하게 이어져 있음을 意味한다.

위의 傳說에서처럼 風水 모티프로써 과목을 경계하는 傳說에는 ‘매촌 머슴무덤’<sup>53)</sup>, ‘地穴 난 뒷자리’<sup>54)</sup>, ‘개미목穴’<sup>55)</sup> 등이 있다. ‘매촌 머슴무덤傳說’에서의 林助防將은 豪氣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애초 地官이 잡아 준 뒷자리를 形局이 좁다하여 마다하고, 큰 發福을 慾心 내어 形局이 큰 자리를 잡아 先墓를 썼다가 當代에 亡했다 한다. 또 ‘地穴 난 뒷자리’의 人物은 墓基가 딱시루 形局이라고 해서, 祭祀 때마다 빛지면서 시루떡을 많이 찌다 보니 몇해 안 가서 亡해 버렸다. 이 傳說의 口述者の 부연—모든 게 다 운에 맡길 일입주 욕심이 과하면 도둑이 반이라고 분수 외엿 욕심은 안되는 법이우다.—이 말해 주듯이 이들 傳說들은 分數外의 過慾이나 虛勢를 경계하고 있다.

‘개미목穴傳說’에서는 沒落의 모티프가 없는대로 守分意識이 直說的으로 드러난다. 그 概要는 이러하다.

- ① 漢拏山 개미목에는 要穴이 있다.
- ② 二獸場 牧者는 名地官인데 牧使가 그에게 개미목穴을 찾아 줄 것을 명령했다.
- ③ 개미목穴을 찾은 牧者가 牧使에게 누구의 뒷자리냐고 물은즉, 牧使의 대답이 자기 부친 뒷자리라고 한다.
- ④ 이 말을 들은 牧者는 다음과 같이 牧使를 꾸짖고 사라져 버렸다.

“너희 아버지는 元任大臣이고 너는 한 고을의 方伯인데 그보다 더 될려고 穴地를 구하느냐, 元任大臣 위엔 임금 밖에 없는데, 필경 너는 역적 도모하려는 놈이로구나...”

위의 傳說들에 드러나는 제주사람들의 意識은 現實을 수용하여 분수에 맞게 살아 가려는 守分意識이다. 이러한 意識은 現實을 타개하고 上向을 志向하는 姿勢로서는 消極的이지만 不滿의 現實 속에서도 足함을 알고, 苦難 속에서도 웃으며 살려고 한 智慧로운 心意의 所産이다.

## 5. 抵抗意識

濟州島의 人物傳說을 비롯하여 自然傳說에서 살필 수 있는 또 하나의 意識의 特徵은 이들 傳說 속에 모순된 現實을 克服하려는 抵抗意識이 짙게 드러나고 있다는 事實이다. 抵抗의 樣相은 外勢에 대한 抵抗과 身分的 갈등에서 起因한 抵抗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抵抗은

53) 秦聖麒, 「南國의 民譚」(형실출판사, 1981) pp. 65~67

54) 上揭書, pp. 68~69

55) 上揭書, pp. 56~60

地理的 歷史的으로 平衡을 잃은 秩序의 正常狀態에로의 復歸와 人間회복을 열망하는 島民의 意識의 所産이라고 풀이된다.

### 1) 外勢에 대한 抵抗

傳說을 통해서 볼 때, 濟州島民들의 外세에 대한 抵抗意識은 濟州 對 中國, 濟州 對 本土의 두 關係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中國에 대한 抵抗意識은 自然傳說에서, 本土에 대한 그것은 人物傳說에서 形象化되어 있다.

제주사람들의 外세에 대한 저항은 먼저 濟州 對 中國이라는 關係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濟州의 地理的 不毛性이 濟州 對 中國이라는 關係의 葛藤에서 緣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제주 사람들은 ‘고종달(胡宗旦) 傳說’에서 그들의 抵抗意識을 드러내고 있다. ‘고종달(胡宗旦) 傳說’에서 제주사람들의 抵抗意識을 드러내는 에피소드에는 ‘행기물 傳說’, ‘거스름샘이 노단샘이 傳說’, ‘遮歸섬 傳說’ 등이 있다.

(1) ‘고종달’이 제주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단땀해 나가다가 제주시 禾北洞에 이르러, 그 동리에 있는 ‘행기물[泉]’의 水脈을 끊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물 안 그 샘의 水神이 백발 노인으로 化하여 발가는 농부가 두어 둔 길마 밑의 행기 속으로 숨어버려, 고종달은 길마가 있는 밭까지 찾아 왔지만 그의 地理書에 있는 ‘꼬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sup>56)</sup>은 끝내 찾지 못했다. ‘고종달’은 ‘이놈의 地理書가 엉터리구나’ 하면서 찢어 던져 버리고 가버렸다. 그래서 그 샘은 살아났고, ‘행기물’이라 불리우게 되었다.<sup>57)</sup>

(2) ‘고종달’이 제주의 단땀을 끝내고 돌아 가는데, 翰京面 앞바다에 있는 차귀섬 부근에 이르렀을 때였다. 한 마리의 날새 매가 날아 와 별안간 폭풍으로 변하더니 ‘고종달’의 배를 전복시켜 버렸다. 이것은 한라산 수호신이 매로 化하여 고종달의 횡포에 복수를 한 것이다. 그 후부터 ‘고종달’이 돌아감을 막았다 하여 이 섬을 遮歸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sup>58)</sup>

勿論, 이 두 傳說이 의도하는 바는 그 地理的 事實이나 地名의 由來를 說明함에 있다. 그런데 이것을 고종달(胡宗旦)의 挫折 모티브로써 설명하고 있다는 데서, 이 傳說을 生成한 濟州島民의 意識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들 傳說에서의 고종달(胡宗旦)의 挫折은 바로 고종달(胡宗旦)에 대한 抵抗意識 내지 복수심의 反映이다. 제주 사람들은 그의 죽음에서 통쾌감을 느끼며, 壓勝之術의 第一人者인 그였으나 地理書를 찢고 돌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속에 그들의 울분을 카타르시스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傳說에서 드러나는, 고종달(胡宗旦)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抵抗은 결코 積極的인

56) 「꼬부랑 나무」는 소길마를 의미하여 「행기」는 못그릇임.

57) 玄容駿, 前掲書, pp. 44~46

58) 秦聖麒, 南國의 傳說, 前掲

것을 못된다. 고종달(胡宗旦)의挫折이나悲劇의인 죽음이 제주사람들의 직접적인反抗에 있는 것이 아니라水神의圖生逃避나漢擎山神의노여움때문이라는점에서그리하다.그러나이들傳說들이斷脈者高宗달(胡宗旦)에대한抗辯의意味를지닌다는점에서볼때,소극적인대로제주사람들의저항의식의발로라풀이되는것이다.

그런데고종달(胡宗旦)에대한제주사람들의抵抗은고종달個人에대한抵抗의意味만을갖는것이아니다.濟州의斷脈이高宗달(胡宗旦)個人的意思에서이루어진것이아니라秦始皇(또는中國王)의指示에依한것인만큼,그것은濟州對中國(外勢)이라는次元의意味를갖는다.따라서이들傳說是中國이라는外勢의힘이濟州에서作用할수없다는地域的排他性내지民族的主體意識을드러내는것이라할수있다.<sup>59)</sup>이러한濟州島民의意識은‘漢川왕바위傳說’에서는보다뚜렷한모습으로나타나고있다.

옛날에중국에서우리나라에돌로배한척을지어보내라는억지指示가내려온적이있었다한다.우리조정에서는百方으로궁리를해보았으나妙策이없어서돌이많은제주에돌배를만들어내도록下命했다.할수없이제주에서는한라산의바위를깎아내어한내[漢川]가로 옮겨왔는데돌과돌을이어배를만든다는것은不可能한일이였다.結局賞을걸고妙方을求하게되었는데,한老인이나타나서‘중국에使臣을보내되,배는다되었으니,돌로뚫이랑뚫을만들고와서배를가져가시오’라고말하면된다는것이다.그말대로따랐더니果然그후에는돌배에관하여서는一言半句도말이없었다.지금한벉가여기저기흩어져있는왕바위들은그때배를만들려고깎아놓은돌이라고한다.

이傳說에서는제주사람들의저항이‘고종달傳說’에서보다,보다具象化되어있다.비록실력대결을통한저항은아니더라도한老人의機智로외세의부당한침해를制御하고있는것이다.한편의傳說이오래傳承된다는것은그傳說을말하고또듣는사람들의共感帶가거기있기때문이다.따라서위의傳說들은濟州島民들의겪었던外勢의侵奪의熾烈성과함께그에對한意識의一面을反映하고있는것이라하겠다.

제주사람들의외세에대한抵抗의또다른하나의측면은濟州대本土라는관계에서의것이다.傳說에드러나고있는,제주사람대本土사람과의인간관계는화해보다는갈등의관계가더흔하다.‘외팡이강당령’‘吳察訪’‘십돌부각대’‘한연한배임재’등의人物傳說에서그러한갈등의양상이두드러지게나타난다.

‘외팡이강당령’<sup>60)</sup>의경우를보면이러하다.‘외팡이강당령’이文科에급제하여內職으로있었는데관원들이‘제주놈’이라고강당령을잡보다가도리어무안을당하였다는것이다.하루는大殿別監이라는‘品階 높은宦官’이강당령에게말을걸었는데,두사람사이에다음과같은問答이오고갔다한다.

59) 蘇在英, 前揭論文. p. 76

60) 南濟州郡 城山面 三達里의「姜掌令」

“강당령은 제주에서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주에서는 말을 많이 기른다면서요?” “그렇지요”

“제주는 왜놈 땅과 가깝다면서?” “네, 그렇지요”

“왜놈하고 通婚도 하는가?” “하지요”

“倭와 통혼하여 난 자식은 무엇에 써?” “쓰긴 무엇에 쓰겠소. 女子로 나면 官婢로 쓰고 男子로 낳으면 불알을 까서 宦官으로 보내지요”<sup>61)</sup>

이 마지막 대꾸에 宦官은 낯이 붉어지면서 아무 말도 못했고, 이후로는 쉼내의 官員들이 강당령을 ‘제주놈’이라고 下視하지 않았다 한다.

이 傳說에 드러나는 濟州 대 本土의 갈등은 本土 사람들의 제주 사람에 대한 멸시에 그 原因이 있다. 이 멸시와 受因에 대한 제주사람의 울분이 抵抗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本土 사람들의 제주사람에 대한 意識이 과연 어떠했느냐 하는 論議는 여기선 덮어 두기로 한다. 문제는 오히려 제주사람들 스스로가 濟州 對 本土라는 관계에서 地域的 갈등이 극심했다는 데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그럴 만한 理由를 들 수 있다. 첫째로 그것은 제주사람들이 本土와 濟州와의 관계를 支配와 被支配의 관계로서 파악하고 있는 데 있다. 제주사람들의 生活를 고난으로 몰아 넣은 여러 要因, 이를테면 朝廷에 대한 과중한 貢納, 牧民官에 의한 收奪(牧民官은 거의가 本土人이었다)등이 本土라는 개념으로 表象化 된 것이다. 그러기에 濟州島民의 意識에 비친 本土人은 야속한 存在일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하나의 理由는 제주사람들의 自尊心에 있다. 일찌기 石宙明이 ‘제주도 수필’에서 濟州人의 特性의 하나로서 강한 자존심을 들고 있거니와<sup>62)</sup> 濟州島民의 自尊意識은 傳說에도 드러나고 있다. ‘고종달(胡宗旦) 傳說’을 비롯하여 自然傳說에서 제주를 王侯之地로 表象함으로써 ‘제주’라는 한 地域의 意味를 格上시키고 있음에서<sup>63)</sup> 그 一面이 드러난다. 이 귀한 자존의식이 本土에 대한 承服내지 屈從을 不許함으로써 갈등과 저항을 낳게 한 것이다. 아울러 島嶼地域의 特性인 閉鎖性·自衛性이 排他意識으로 作用한 結果이기도 할 것이다.

‘심돌 부대각’, ‘오찰방’, ‘한연 한배 임재’ 등의 傳說에서는 제주사람들의 저항은 위에 든 외판이 강당령’의 경우보다 더 尖銳化하고 있다. 이들 傳說들의 內容은 壯士인 주인공들이 제주의 무극선을 掠奪하는 해적선과 싸워 이긴다<sup>64)</sup>, 제주놈이라 갈보는 本土人과의 對決에서 힘으로써 勝利한다<sup>65)</sup> ‘제주 놈이라고 부당한 처우를 한 정승을 죽여 복수한다’<sup>66)</sup>는 것으로, 모두가 힘이나 道術으로써 本土人을 制壓하는 이야기들이다. 그리하여 이들 傳說들은

61) 秦聖麒. 前掲書. pp. 271~273

62) 石宙明. 「濟州道 隨筆」(寶善齋, 1978) p. 102

63) 현길언. 전계서 p. 84

64) <심돌 부대각> <한연 한배 임재>

65) <심돌 부대각>

66) <吳 察 訪>

제주사람들의 意識 속에 있는 억압된 心理를 해소시켜 주고 있다.

## 2) 官員에 대한 抵抗

鮮朝에서 官僚들의 作弊은 우리나라 어디서나 一般의인 現象이었지만, 中央 朝廷과 멀리 떨어져 있는 濟州는 그 弊가 더욱 甚했다. 世宗朝 때, 濟州察訪 金爲民이 조정에 올린 官僚 積弊 10個項만 보더라도 官吏나 土豪들의 橫暴나 收奪이 얼마나 極甚했던가를 알 수 있다. 이 중 몇 가지만을 들어 본다면, 土豪가 良民을 強占하여 제멋대로 노예처럼 使役을 시키는 일, 6, 7月 農繁期에 獐鹿皮를 進上케 하기 위하여 여러 날을 사냥의 물잇군으로 혹사하여 농사를 失期케 하는 일, 民家의 女兒를 ‘遊女’라 記帳하여 官婢처럼 使役하는 일, 進饋·進馬 時에 私物·私馬를 挾帶하는 일 등이다.<sup>67)</sup>

官員·土豪들의 횡포가 이렇듯 심했으므로, 中央 朝廷에서는 가끔 宣慰使를 파견하여 포학에 시달리는 도민들을 회유도 하였지만 이들의 弄奸과 貪虐은 여전했고, 島民들은 그들의 수탈과 농간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官員이나 上典에 대한 身分的 갈등과 이로 인한 저항의식이 없을 수 없다.

勿論 濟州의 傳說 중에는 ‘奇處牧使’<sup>68)</sup> ‘掛鞭岩’ ‘石北先生과 진복회’<sup>69)</sup> 등 清白吏의 人間象을 부각시킨 傳說도 있다. 그것은 清白吏를 갈망하는 濟州島民의 意識의 反映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망은 좀처럼 이루어질 수 없었다. 數百을 헤아리는 牧民官이 갈려 갔지만 그들의 거위가 착취자였고 吏胥輩 또한 그러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傳說에 드러난 바, 濟州 사람들의 選擇한 意識은 屈從보다는 저항이었다. <달을 건진 도강쇠><sup>70)</sup> <역도형 하문철><sup>71)</sup> <西歸鎮 邊仁泰><sup>72)</sup> 傳說에서 身分的 갈등에서 오는 저항의식이 돋보인다.

그런데, 신분적 서열의식이 엄한 사회제도 아래서 서민이나 하인배들은 官吏나 上典에 對한 정면 충돌이나 비난은 不可能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抵抗의 方法을 諷刺와 諧謔에 의존한다. 위의 傳說들도 이러한 점에서 共通性을 지닌다.

‘달을 건진 도강쇠傳說’은 ‘도강쇠’가 자기 妻의 미모를 貪하는 牧使의 奸計를 機智로써 좌절시킨 이야기이고, ‘力道形 下門穴傳說’은 政事는 돌보지 않고 民弊만 끼치는 牧使의 非理를, 그의 下人이 猥褻의 諷刺로써 깨우쳐 주는 이야기다. ‘西歸鎮 邊仁泰傳說’은 西歸鎮 官屬下人인 邊仁泰의 行迹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식은 했으나 피가 비상하고 거짓말을 잘

67) 世宗實錄, 卷三十六, 九年 六月條

68) 玄容駿, 上揭書. pp. 74~78

69) 秦聖麒, 「南國의 民譚」, 前揭 pp. 259~260

70) 上揭書. pp. 88~91

71) 上揭書. pp. 126~128

72) 玄容駿, 上揭書. pp. 141~147

秦聖麒, 上揭書. pp. 104~118

했다'는 그의 性格 설명을 前提로 하면서 몇 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에피소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그가 거짓말의 名手임을 증거하는 이야기
- ② 牧使가 먹는 고기를 뺏어 먹은 이야기
- ③ 官長을 파면시킨 이야기
- ④ 西歸鎭 助防將의 아내를 弄絡하고 그 弱點을 이용한 이야기 등이다.

이들 에피소드에서의 邊仁泰의 成功은 폭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꾀와 거짓말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 傳說은 특히 諧謔性이 두드러지다. 이들 傳說들이 濟州라는 共同體에서 널리 傳承되는 까닭은 바로 이 해학의 재미에 있으며, 또 해학으로 現實의 非理(官員)을 극복하는 人物의 行적을 통하여 自身の 心理的 抑壓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傳說이 지니는 機能과 意味, 그리고 濟州島民이 現實을 살아나가는 方法의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IV. 結 言

本稿는 濟州島 說話 研究의 一環이라는 前提 아래, 濟州島 傳說에 드러난 濟州島民의 意識을 밝혀 보는 것이었다. 濟州島는 地理的·歷史的 條件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獨立된 共同體로서 固有한 傳說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거기엔 濟州的인 生活樣式과 特殊한 風土의 與件下에 삶을 살았던 島民의 意識이 投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 傳說에 投影된 意識을 밝히는 일은 어려운 時空을 살아온 濟州島民의 모습을 밝히는 일이 되는 것으로, 本稿는 여기에 意義를 찾아보려 하였다. 다음에 이제까지 論議해 온 바를 要約하여 結論으로 삼는다.

1. 濟州島의 自然傳說 중, '설문대할망傳說' '고종달斷脈傳說', 아흔아홉골傳說' 등은 濟州島의 地理的 生成事實과 아울러 風土의 條件을 合理的으로 說明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傳說들은 風水說과 關聯지어 濟州의 地理的·歷史的 不毛性을 決定的 事實로 이야기 하고 있다. 이것은 現實狀況의 制約에서 오는 苦難을 宿命的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諦念이며, 주어진 與件에 대한 限界意識의 所産이다. 이 諦念意識은 不合理한 現實을 改造해 보려는 未來指向的인 意志의 缺乏으로 指摘될 수도 있으나, 反面에 苦難을 忍耐하고 살아온 濟州島民의 底力이기도 하다.

2. 濟州島는 地瘠土薄하고 强風·豪雨·旱害의 三災로 인하여 農業에는 不利한 高장이었다. 게다가 官員들의 收奪과 外勢의 侵奪이 겹쳐 島民들은 가난을 면할 수 없었다. 生存의 與件이 이러했기에 가난과 그로 인한 挫折意識이 傳說에 드러나고 있다. '설문대할망傳說'의

더러 에피소드들이 濟州島民의 貧困을 말해주는 모티프들로서 形象化되어 있는 것은, 이 傳說을 形成한 島民의 意識이 가난의 문제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特히 超人的인 힘을 가져다 준지런히 일하나 大食家이므로 해서 虛饑 속에 挫折하는 奴僕壯士들의 一生譚에서는 濟州島民의 가난에 대한 恨스러움과 挫折義識이 强하게 드러나고 있다.

3. 濟州島의 ‘오누이힘내기傳說’이나 ‘아기장수傳說’은 이들 傳說의 一般的 構造와는 다른 變異形態를 보이고 있다. 즉 濟州島의 경우, 이들 傳說들이 一般的으로 지니는 特徵인 極烈한 悲劇性이 相當한 水準으로 除去되고 있다. 葛藤과 沒落이라고 하는 構造가 아니라 葛藤과 그 解消라는 構造로 變異되어 있는 것이다. 傳說은 空間的 制約을 받으므로 各地方마다의 特殊性을 지니는 것으로, 傳說에 있어서의 變異가 無秩序며 氣分대로의 非論理的 現象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오랜동안 한 集團에서 傳承되어 온 傳說이라면 變異에는 그 나름의 地域的 理由가 있다. 이렇게 볼 때, 濟州島에 있어서의 ‘오누이힘내기傳說’, ‘아기장수傳說’의 變異는 現實狀況과의 對峙에서가 아니라 現實과의 知解를 통하여 살아나가는 濟州島民의 意識이 反映된 結果다.

4. 濟州島 傳說 중에는 ‘風水傳說’이 흔하다. 그만큼 風水信仰이 盛行했음을 意味한다. 名堂을 찾으면 發福한다는 風水信仰의 底邊에는 退嬰的이고도 運命論的인 思考가 깔려 있는 反面, 現實의 上向을 志向하는 意志가 强하게 作用하고 있다. 그런데 風水信仰의 所産인 濟州島의 風水傳說에는 逆說의이기도 이러한 慾求에 대하여 警世의 意味를 가지는 것이 많다. 名堂의 俗信을 믿으면서도 分數에 지나친 求山行爲를 警告하면서 守分意識을 드러내고 있다.

5. 濟州島의 一部 自然傳說이나 人物傳說들에서 살필 수 있는 島民의 意識 중, 또 다른 特徵은 現實의 非理와 運命에 대한 抵抗이다. ‘고종달傳說’과 ‘한내왕바위傳說’에서는 消極的인대로 中國이라는 外勢의 힘이 제주에서 作用할 수 없다는 地域的 排他性 내지 民族的 主體意識을 드러내고 있다. 또 ‘吳察訪’, ‘한연한배임재’ 등의 傳說에서는 섬〔島〕 킴플렉스에서 벗어나려는 意志가 陸地人에 대한 抵抗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西歸鎮 邊仁泰’ ‘하문월역도형’ 傳說 등에서는 身分的 葛藤에서 오는, 官員이나 上典에 대한 抵抗意識이 諧謔的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濟州島 傳說에 드러나는 이와 같은 抵抗은 地理的·歷史的으로 平衡을 잃은 秩序의 正常狀態에로의 復歸와 社會的 人間回復을 熱望하는 濟州島民의 意識의 所産이라 풀이된다.

## 參 考 文 獻

- 金尙憲. '南槎錄',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 金錫翼. '耽羅紀年',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 金烈圭外. '民談學概論', 一潮閣, 1982.
- 金烈圭.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一潮閣, 1972.
- 金榮敦. '濟州島 民謠에 드러난 生活觀', <知恩邊時敏博士回甲紀念論文集> 1978.
- 金 淨. '濟州風土錄',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 金泰能. '濟州民의 流亡과 出陸禁止', <제주도 27호>, 제주도, 1960.
- 成普說. '韓日民談의 比較研究', 一潮閣, 1982.
- 蘇在英. '傳說' <韓國民俗大觀6>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82.
- 尹泰林. '韓國人', 玄岩社.
- 尹泰林. '韓國人의 性格', 現代教育學叢書出版社, 1970.
- 李 健. '濟州風土記'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 李圭泰. '韓國人의 意識構造·上·下' 天理社, 1980.
- 李元鎮. '耽羅誌',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 張德順. '說話文學概說', 宣明文化社, 1974.
- 張德順外.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81.
- 趙東一.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社, 1981.
- 趙東一. '敘事民謠研究', 啓明大出版部, 1970.
- 秦聖麒. '南國의 民譚', 형설출판사, 1976.
- 秦聖麒. '南國의 傳說', 教學社, 1981.
- 濟州大學統一安保研究所. '濟州道民의 意識構造調查研究', 제주도, 1279.
- 崔來沃. '아기장사 傳說의 研究', <한국민속학, 11집>, 韓國民俗學會, 1979.
- 崔常壽. '韓國民間傳說集', 通文館, 1958.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口碑文學大系9-1 (제주도복제주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680.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口碑文學大系9-2 (제주도제주시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韓國口碑文學會編. '韓國口碑文學選集', 一潮閣, 1982.
- 玄吉彥. '제주도의 장수설화', 弘盛社, 1981.
- 玄吉彥. '濟州說話를 통한 濟州島精神考究', <濟州大學論文集 12輯>, 1980.
- 玄容駿. '濟州島傳說' 端文堂, 1977.

<Abstract>

## A Study of Consciousness of Inhabitants of Jeju Island To Be Revealed in Legends of Jeju Island.

Im Hong - s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verifies an aspect of consciousness of inhabitants of Jeju island through analysis of legends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Jeju island.

Since legends reflect a sense of community containing them, legends of Jeju island reflect consciousness of inhabitants of Jeju island. And then it is possible to ascertain consciousness of them through legends.

The aspect of consciousness of them follows:

1) A sense of resignation against geographical and historical situation. Legends of 'Seolmoondai Halmang', 'Ko jongdal' and '99 valleies' rationally explain the endemic conditions of Jeju island. And they also connect geographical and historical barrenness of Jeju island with the idea of 'Poong Soo' This reflects consciousness that looks on realistic hardship as fatalistic and resigns.

2) Most of legends of Jeju island are based on the motif of poverty. Especially, there are many legends about persons who were strong and diligent, but always in hunger and died. This reflects a true picture of life that they were poor. That is, this strongly reflects frustration from poverty.

3) As compared with other regions, 'Legend of Brother and Sister of Great Strength' or 'Legend of Baby Giant' reflects a type of variation that excludes tragic ruin of characters at an end of a story. This does not show standpoint against realistic situation, but consciousness of them living in perfect harmony with reality.

4) In 'Legend of Poong-Soo', it shows an attitude keeping to their sphere in life through figuration of story about persons that are ruined by unselfishness.

5) Another peculiar sense of inhabitants of Jeju island revealed in legends is a sense of resistance based on discord with reality. one is a sense of resistance against land from island complex, the other is from positional trouble. Through this sense of resistance, inhabitants of Jeju island purify their agony in reality. This sense is mainly in 'Legend of Man'.